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利福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

社說

歐洲戰局의 展望

一

歐洲의 火山은 爆發되엿슴에 틀림이 업스나 그 噴火狀態는 依然 우리의 豫想한바와 어긋나고잇다。 여기서 或者는 췌코 解消時 英佛의 總動員보담 좀더 大規模일뿐으로 곳有耶無耶中 安帖되리라고 보고 或者는 아직은 本格的 爆發의 序幕으로 終當의 大動亂이 오리라고 보고 또 或者는 이로써 곳第二歐洲大戰의 特徵처럼 議論하야 各個人의 觀測이 실로 區區不一한바 잇거니와 오늘까지의 現狀으로서는 그歸結을 斷言키 힘드는것이 事實이다。 첫째 當然히 獨逸과 共同行動을 取하리라고 생각하엿던 伊太利가 어째서 中立을 聲言한채 陰鬱한 沈默을 지키고 잇는가。 둘째 堂堂히 宣戰을 布告한 英佛側이 어째서 獨軍의 波蘭席捲을 坐視하는듯 西部戰線의 軍事行動을 좀 더 敏速히 하지안는가。 셋째 獨逸이 波蘭을 征服後는 直接 蘇聯과 國境을 連接케 되는데 蘇聯서 반듯이 그것을 歡迎할까。 넷째 現在까지 獨逸을 딸아 軍事行動을 取하는 나라는 오직 슬로바키아 一國뿐이니 獨逸은 맨처음부터 勝算을 가지고 英佛波와 干戈를 겨누고 잇슬까。 이 모든것이 아직은 모두다 五里霧中이다。 이 裏面을 꾀뚤어 보지못 하는以上 結局 揣摩臆測에 不過하는 것이다。

二

伊太利는 獨逸과 盟約이 잇서 가지고 獨逸이 波蘭을 占領後 平和會議를 提議해서 平和的으로 地中海와 北아푸리카에 對한 自國의 地位를 有利케 하려는 것으로 그 會議에 英佛이 應치 안 할 때 參戰해도 늣지 안타。 아니 伊太利는 波蘭征服에 因한 獨逸國威의 强盛을 忌避해서 슬그머니 英佛편에 加擔해 가지고 獨逸을 억누르고 自國의 權益만을 낙그려는 것으로 獨逸은 드디어 孤立無援하게 되어 戰爭을 繼續치 못할것이다。 또 英佛은 실상 面目問題로 宣戰을 하엿슬뿐이지 全然 戰意가 업스매 波蘭이 獨逸에 征服된뒤 어느 程度의 條件으로 獨逸의 讓步를 求하여 그들의 面目이나 세우기에 끄치고 말려는것뿐이다。 아니 英佛側은 오직 長期戰으로써만 獨逸에對한 勝算이 서고 그래서 이미 長期戰을 覺悟한 터인즉 이제 그러케 作戰을 急히 서둘러서 攻勢로나올 까닭은 업는 것이다。 大槪 이러케들 서로 意見을달리하는 모냥이로되 지금 伊太利의精銳한空軍은 前日과가치 英海軍을 겁낼 턱이 업슬뿐더러 前番 英佛에 속은 經驗이 잇지 안한가。 또 아모리 戰爭을 忌避하는 英佛이기로서니 이미 宣戰까지 한 오늘날 龍頭蛇尾의 姿帖으로써 그칠 수는 업지 안한가。

三

戰爭이 進展될망정 좀처럼 끄치지 안 하리라고도 보이나 그러타면 英佛 現在의 態度는 거의 不可解의 일이다。 軍事의 門外漢인 우리로서 軍事行動의 可否를 論評한다는 것은 우수운 일이나 獨逸이 東部戰線에서 波蘭을 屈服시키고 徐徐히 全軍力을 몰아 西部戰線으로 올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常識的으로도 戰爭할 사람들과는 갓지 안타 그렁이 아니라 蘇聯이 지금 獨逸과 不可侵條約을 매젓다고는 하고도 獨逸서 어느 모로 보아 伊太利보담 蘇聯을 重히 녀기는것도 갓되 마지노線을넘어서 西으로 進出케 어려운 以上 獨逸의 進路는 如前히 波蘭을 通하며 우크라이나에 노히엇슬것이요 따라서 獨蘇의 親善도반도시 [illegible] 저른 것은 아니다。 요전番 蘇獨協定때와 가티 또한번 英佛은 西歐平和의 代償으로 그의 東進政策을 承認치나 안할는지 그보담은 英佛이 그러한 危險을 指摘해서 끈닥지게 蘇聯의 拘入工作을 繼續하는 同時에 蘇聯도 거기應하게 되지나 안흘지 그것도한갓 부질업슨 空想만은 아닐것갓다。

伊政府遂態度闡明

平和斡旋努力은歸虛

地中海의生命線은斷乎擁護

軍事的萬全準備完了

(사진은 무伊首相)

【羅馬十日發同盟】 歐洲大戰勃發과同時에 伊太利는即時 中立的態度를表明하는一方 英佛獨 波各國에向하여 事態의平和的解決에對한 斡旋의勞를取한바 英佛兩國의參戰이決定되어 이미 西部戰線에서 戰鬪가開始되엇슴에도 不拘하고 伊太利는中立을 維持하고잇스므로 伊太利態度에對하여는 各種臆測이 盛行되고잇던바 十日伊太利政府는 라디오放送으로써 左와如히伊太利政府의 態度를闡明하엿다

一、伊太利는 베르사이유條約修正要求를 버리지안호며 獨逸의 對波要求에 對하여는 同情을 不禁한다 그러나 問題의平和的解決을 希望하고 最後까지 努力을 不惜하여왓다

一、伊太利의中立은 國際的孤立을 意味하는것은아니다

一、伊太利의 利害는 地中海에잇는것으로 그平和維持에 對하여는 絶大關心을 가지고잇다 지브랄타르로부터 보스포러스에 이르는 海面이야말로 伊太利의 生命線이다

一、伊太利는 온갓事態에 對應하고자軍事的으로도萬全의準備를 期하는同時에 國民의福祉增進에對한 努力도 繼續하고잇다

伊、對獨積極援助?

國民도漸次參戰論主唱

【紐育十日發同盟】 歐洲和戰의關鍵을掌握하고잇는 뭇솔리니首相의 態度에對하여는 各方面에서 各種臆測이 盛行되고잇는바 十日 紐育에達한 AP通信羅馬電은 伊太利新聞의論調가 漸次對獨積極支援에 기우러저는點을指摘하여 如左히報道하고잇다 뭇솔리니首相은 今後方針에關하여 一切沈默을지키고잇스나 伊太利新聞의論調가 漸次積極的으로 獨逸을支持하기始作한것은 極히注意되는바이다 即 伊太利新聞은

一、獨逸軍의 波蘭進擊作戰의成功을 極口絶讚하고잇는것

一、英佛兩國이 何等大規模的攻勢를 取하지안는것은 우수운일이다

一、英國이 諸國의中立을 侵害한데對하여 非難하고잇는것 等에依하여 看取되는바이다 他方一般國民도 最近에와서 漸次參戰論으로 轉向하는熱意를 보이고잇서 伊太利는 結局獨逸을 援助키爲하여 參戰 佛國을 擊滅하라는소리가 漸次高까저고잇다

◇…我軍의砲彈에 命中되어 火災를일으킨 敵戰車(滿蒙國境)…◇

佛軍의進擊阻止

잘河方面獨軍反擊猛烈

【巴里十日發同盟】 西部戰線은 十日獨佛先遣部隊의 衝突로 俄然活潑化함에 이르럿는데 十日佛軍司令部의 戰況發表를 보면 獨佛兩軍衝突의 地點은 모젤河와 잘河의 交流에依하여 形成된 三角地帶이며 同地點은 佛軍이 西部戰線北部에서 가장거편 獨領에侵入되어잇는곳이어다 獨軍은 俄然이地帶를 노리고反擊하여와다 同時에 그東南方 八十키로의佛領에 들어와잇는 잘河와 보쥬山麓과의 사이에서 佛軍은三十키로戰線을느리고 前進하고잇다 그런데 軍事消息通은 二地帶間의戰線에서 佛軍의 前進은 獨軍의 反擊으로阻止되엿다고 다음과가치말하엿다

獨佛國境最北端의 戰線과 中部잘河와 보쥬河에낀 地帶의 中間戰線에서는 獨軍이 저난九日 [illegible]要塞로부터 反擊을 開始하엿스므로 佛軍은 國境을 距하기六키로國境과 併行하는 잘河에沿한 進擊이阻止되엇다

을맺고잇는中이다

佛機三機擊墜

【伯林十一日發同盟】 獨逸軍最高司令部는 十一日 西部戰線戰況에關하여 如左히 發表하엿다

一、佛軍의 飛行機三機는 獨領에擊墜되엇다

一、업서 我方에撤退한 잘부뤼켄飛行場은 佛軍의 砲擊

獨軍도苦戰繼續

東部戰線에掉尾의激戰

【伯林十一日發同盟】 獨軍一部機械化部隊는 왈쏘占據에압서 기괴 敵陣에突入하여 어미 八日왈쏘의 一角에 侵入하엿는데 首都를 死守하는波軍의猛烈한反擊을만나 드디어 市街戰이展開되엿다 波軍은 市內의各道路에 巨大한戰車壕를 掘鑿하고 獨機械化部隊의 進擊을阻止하는一方 各民家의 屋上에陣地臺를構築 必死的抵抗을 繼續하여 왈쏘市는一大要塞로化한感이엇다 獨軍은 市街에猛擊을 加하여 巨砲의威力과 相俟하여 破壞作戰에나와 마치掉尾의激戰을 聯想케하는바잇다 獨軍도苦戰을 繼續하고잇다 他方南方戰線에서는 루멘니아 國境으로부터 突然波面部隊가 出現하여 렘브르크方面을向하여 北上中央部의 部隊와 相俟하여 부그河의線을向하여 一路前進하고잇다 一兩日來突이가치 各戰線에서 波軍은 敗戰에敗戰을 거듭하는狀態가되엇다 英佛兩國은 軍事顧問技術家及 飛行機等을 供給하여 波蘭援助를 開始한模樣인데 頹勢挽回는 困難으로 東部戰線의 大勢는 決定된 感이 깁다

獨逸潛水艦跳梁

英船二隻을擊沈

【倫敦十一日發同盟】 英國情報省은 十日附戰況公表에 獨逸潛水艦의 盲爆狀況에關하여 다음가치 發表하엿다 英國海軍은 獨逸海軍의 活動에對하여 各種攻擊을 加하여 多大한 戰果를 어덧스나 그 跳梁은 依然繼續되어 十日에는 마크다필號가 (八、六四一噸) 擊沈되고 死者數名을 내엿다 또九日에는 리오크라로號(四、〇八八噸)도 獨逸潛水艦에게 擊沈되엿다 多幸히 乘組員은 和蘭汽船에救助되어 아조레스島에 上陸하엿다

蘇聯空軍新型制定 米式戰鬪機를模倣

◆蘇空軍에서는 最近五十九型을 새로制定採用하엿다 同機는米國式戰鬪機셉스키三五型을 基本으로 設計된것으로 그性能은 如左하다 單發低翼가모든重兵發動機九五〇乃至一千馬力最大速度四八三粁(高度三千米突에서)機關銃四裝備

◆海參威造船所에서는 來年度建艦計畫으로서 極東艦隊所屬의 新型驅逐艦(九千噸級)一隻을目下建造中인데 今年中에 着手할豫定이엿다

도잇다

◆今回蘇聯에서는 都市에十年制 農村、共和國에 初等七年制의 中等學校의 義務制를 制定하엿는데 어른떨러야만 增加될 生徒에 對하여 敎師五百人이必要하므로 敎師養成에 七千人을 收容할 高等師範을九月一日부터 開設하엿다

베政府中立宣言

【카라카스(베네스엘라)五日發同盟】 베네스엘라政府는 五日 官報로서 同國은今次의 歐洲大戰에 中立을 維持할旨를 發表하엿다

阿部首相聲明 佛政界서好感

【巴里十一日發同盟】 巴里政界는 阿部首相의 外交刷新一新을闡明한 十日의 聲明에 對하여一般으로 好感을 가지고잇서 對獨交戰中임에도 多大한 期待를 가지고잇다

阿部內閣政綱政策

今日閣議에附議決定

【東京電話同盟】 阿部內閣의 政綱政策에 對하여는 遠藤內閣書記官長及 唐澤法制局長의 手許에서 起草를 急히하고잇던바 阿部首相의意向도들어 大體脫稿를보게되엇스므로 十二日定例閣議에 附議하게로되엇는데 各閣僚의意向等關係로 同日閣議에서 決定을보지못하는時는 十三日臨時閣議를열고 正式決定하여 곳上奏한後速히 이를中外에 發表하게로되엇다

[illegible]는 이것을 機로 具體的으로 進展될것으로 期待된다 更히그 時局合委員會와 新中央政府에서도 歐洲戰爭에對한 中立的態度를 決定할것이라하여 極히注目된다。

臨時政府中立宣言 關係各國에傳達

【北京十一日發同盟】 去八日發表된臨時政府의 歐洲動亂에對한中立宣言은 即日臨時政府當局으로부터 在北京英米佛獨伊大使館에 傳達되엇다

臨時、維新兩政府 第六次聯合委員會 來二十日에開催

【北京十一日發同盟】 臨時維新政府의 第六次聯合委員會는 오는 二十日부터 三日間南京에서 開催되어 二十二日은 委員會設置一周年記念式典을 行하기로 되엇다 同委員會開催를 機로 王克敏、梁鴻志、汪精衛三巨頭會談도 併行될터인바 新中國建設問題

北支開發會社 賀屋總裁動靜

【北北十一日發同盟】 在京中의賀屋北支開發會社總裁는 十一日午前부터 興亞院華北連絡部其他 日本側關係機關을 訪問하고 就任人事를하엿다 그리고 同總裁는 十二日支那側各機關을 訪問 十三日 石景山製鐵所를 視察한後 十五日張家口로가서 蒙古側各機關을訪問 十八日北京으로돌아와 二十四日까지 滯在 其間 天津水害를視察하고 二十五日 天津濟南靑島로가서 二十八日 靑島出發 日光丸으로 歸國할豫定이다

現實認識이緊要

前駐滿大使植田大將談

【新京十日發同盟】 駐滿大使를辭任한 植田大將은 十日軍人會館에서 新聞通信記者團과 會見하고 滿洲國을 爲하여 幻想을좆차가는나머지에 現實을 이저서는안된다고如左히말하엿다 余의 在任은 三年中이되는데 進步가 激甚한滿洲國의 發展을 도리켜보건대 實際는 어 期間 二十年에저까운 時代의 變遷進步의 자최를 볼수잇는感이잇다 獨蘇不可侵協定이原因이던 아니던 歐洲動亂이일어나서 忽然國際情勢는 一變하엿다 이가튼 情勢에 逢着한 滿洲國은 時代에 順應하도록 諸般 政策施設에 어떤程度의 修正 又는 再檢이 必要할는지 白한바이다 實際로 只今은 滿洲國으로서도 한轉換期에 서엇스므로 어떠에 大使의更迭을 보것은 心機一轉의 意味에서 重要한 意義가 잇슬것이다 따라서 滿洲國이 只今까지 物養 重要視해온 精神과 方策이 果然 可하나 어떠나 그리고 目的達成에 汲汲하는 나머지 발미를忘却함은 危險한일로서 理想에向하여 나아가는同時에 現實의事實을 바루 認識하여야한다 後任의梅津君은 余의가장 信賴하는 一人으로 滿洲國을爲하여 가장適任이다

(寫眞은 植田大將)

英驅逐艦이不法威嚇 我貨物船龍雲丸을

【香港電話】 久富商事所有貨物船龍雲丸(六、四五〇噸)은 마르세이유에서 鐵鑛石六千四百五十噸을 積載하고 十一日午後 若松港에入港하엿는데 同船은六日午後七時頃 臺灣南端으十哩의 地點에 이르럿슬때 突然 砲三門을 搭載한 英國東洋艦隊驅逐艦 五四十九號가 砲門을 同船에向하고 威嚇하며 舷側에까지 接近하여 檢問後 日本船인것을 確認하고야 香港方面으로 갓다고 한다 日本船에對한 威嚇行爲는 怪異한 일이라고 關係方面을 刺戟하고잇다 同船船長 古賀甲太郎氏(五〇)는 同事件에對하여 어러케말한다 從來바ー시海峽附近에서 언제던지 英東洋艦隊로부터 檢問을 當하여왓는데 船員中에는 어떤對策을 講究하여달라는 要望을 가지고잇스나 어떠한가 威嚇을 當하면 安全한航海는 期할수업다 一日이라도빨리 當局의 對策을 바라는바이다

中南支海鷲活躍

【上海十一日發同盟】 艦隊報道部 十一日午後四時發表

一、中支方面에서 昨十日海軍航空部隊는 前日에 繼續하여 江西贛江水域交通機關의 偵察攻擊에從事中樟樹鎭仁丸及峽江에서敵船艇八隻을 爆沈又는 大破하고 또 吉安福市의 周邊에서도 多數의 軍用自働車를 發見하여그 大部分을 爆碎하고 運搬中인軍需品多量을 燒失시켯다

二、南支方面에서 八日以來水路開作業에 從事하고잇던 海軍珠江作戰部隊는 九日航空隊의 掩護下에 그 一部艦艇으로 岐山東祭에서의 陸軍部隊의 揚陸에 協力하고또有力한 陸戰隊로 敵前上陸을 敢行水陸어 呼應하여 所在의 頑敵을攻擊 이를潰走시커고잇서水路掃蕩作業을繼續中이다 그리고 海軍航空隊의 一部는 潮汕附近의 地域一帶에 亘하여有力한敵의 砲陣또는 機銃陣地를 連續爆擊하여 어메甚大한 損害를주엇다

武漢地區戰果

【漢口十一日發同盟】 突然을 무릅쓰고 敵掃蕩中의 武漢地區各部隊八月中戰果는 如左하다

一、江北及大別山方面 交戰回數一一四 交戰敵兵力三二、七五〇 敵遺棄死體二、九一三 捕虜一三三 鹵獲品 重機二 小銃二四三 同彈藥 四三、四三六

一、江南方面 交戰回數 一三〇 交戰敵兵力一四、七六〇 敵遺棄死體一、四四二 捕虜一、八四〇 鹵獲品 重機一 迫擊砲一 小銃三三〇 同彈藥九二、四九二

愛國貯金預入高

朝鮮愛國婦人會와 遞信局이 提携하여 奬勵强調하고잇는 愛國貯金의七月中의 預入高는三十五萬一千六百五十六圓三十四萬二千五百十二圓六十三錢이어서 前月의 預入高에 比하여 一萬八千二百一圓八錢의 增加를보엿엇다

敵屍七千五百餘

八月中北支綜合戰果

【太原十一日發同盟】 八月上旬의 晉安東北方地區의 林彪共產軍第百十五師掃蕩戰 沁源北方地區의 第三百六十九師殲滅戰及 第四十二師武士敏麾下 晉西北地區의 第八十三師、第八十五師殲滅戰等을 비롯하여 山西省內各地區에 展開된 殘匪掃蕩戰의 八月中綜合戰果는左와如히 多大하엿다

我方과交戰한敵兵力 八六、九六七

交戰回數 三八一

敵死體 七、五八六

捕虜 一、一三六

鹵獲品 山砲二、同彈藥一三二、迫擊砲三、同彈藥三一七、重機四、同彈藥八、九四〇、輕機三一、自動小銃四一、〇二一、同彈藥三三八、三〇〇、拳銃九七、同彈藥二五四四、手榴彈二〇、三三〇、靑龍刀八七、銃劍五五三、防毒面三七、電話機一二、馬一五九、無電機九其他、被服、糧秣多數

米穀現在高(九月一日) 秋田縣外十七地方

【東京電話同盟】 農林省第一次發表＝秋田縣外十七地方의九月一日米穀現在高는 五、〇一九、三九六石五斗로前年同期에比하여 一割五分四厘의減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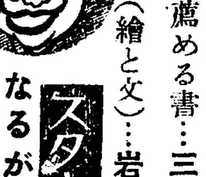
市況(十一日)

◆東京短期◆ [illegible]

創刊十周年記念十月特大號
特價五十錢
モダン日本

國際小說
新疆 小栗虫太郎

夏の背姿 片岡鐵兵
蜜月報告書 中村正常
小說 映畫館前 川端康成
中年女性の妖しき胸の裡を剔る巨匠川端氏の新味滿々の逸品!
小說 秋美しき 舟橋聖一
小說 手裏劍(侍) 白井喬二
滿ソ國境を見る…石井漠
學生に薦める書…三木清
流行(繪と文)…岩田專太郎
思ひ出を人に語る
陛下の部屋…馬場孤蝶 ―戶川秋骨君のこと―
梶上選手の思ひ出…小野三千麿
スター諸孃の賣出し時代 中村完一
なるが儘に委せてある話 凡山隱士
秋の二大野球戰展望 宇野庄治



ずぬひつ
今日の日本…紀平正美
山中湖…內田誠
奥の細道…馬場恒吾
大陸サービス…鍋井克之
老小鳥や…子母澤寬
おの字…澁澤秀雄
和久井さん…下村海南
名士ハガキ回答…三十名士

非常時讀本
日英東京會談の前途は
對歐策はどうなる
歐洲の危機は爆發するか
滿蒙國境の暗雲は去らぬか
支那の新通貨は成功するか
新稅制は何を目ざすか

戰地十六 通信二名
十周年の感想…菊池寬
最初の創案者…久米正雄

私の錫婚式
砲子を語る…窪川鶴次郎
鶴次郎を語る…窪川稻子
友愛結婚十周年…中村チエコ
ノンキな亭主…中村正常
妻を語る…田河水泡
田河水泡を語る…田河江
ジオコンダの微笑…阿部金剛
うちのひと…阿部艶子

評判の尾行記
げんのしょうこ愛湯(有田外相)
黑眼鏡の旦那(石黑敬七)
白いワニの旅行鞄(市丸)

秋の味覺ア・ラ・カルト
初秋秋…本吉佐森
秋の釣…山田藤田
味の讀書…荻紘垣
覺弓趣…舟二郎

英國の匿名軍事評論家の報告
極東に於る英國海軍の劣勢

特別大懸賞 興味津々

輕井澤大對談

近衞文麿と 山本有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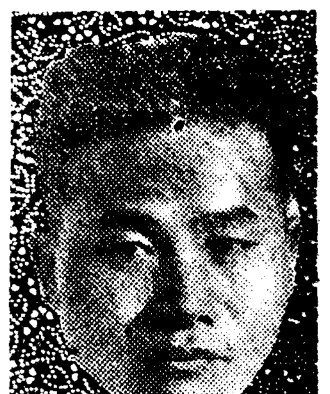
輕井澤の山莊に開く、三時間半に亘る大對談、非常時日本の光榮ある苦惱をその双肩に擔はれる近衞文麿公に配するに、文壇廣しと雖もその眞摯さに於て何人の追隨をも許さぬ山本有三氏、正に本誌ならでは絶對に見られぬ珠玉の文字の鼎列だ! 凉々たる山莊の微風に胸襟を開いた世紀の二巨人は、果して何を語ったであらうか? 時局愈よ嶮艱を許さゞる時、全國民必讀の好讀物!

麴町區內幸町大阪ビル
モダン日本社
振替東京七五一六二

大戰의敎訓

敗戰에慟哭도一瞬 强國獨逸을再建

朝鮮語學會 李克魯博士談



오늘은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간사로잇는 독일경제학박사 이극로(李克魯)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겟다 그는 제일차세계대전이 일어나던때로부터 끗날때까지 상해오송(上海吳淞)에 잇는 독일인 경영의 동제(同濟)대학에서 공부하엿고 또 대전이끗난뒤로는 독일백림대학에서졸업할때까지 유년동안 유학하엿다 그래서 전쟁중 또는전쟁직후의 독일사정을 잘알고잇다 이하는 그의이야기이다。

제일차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청도(青島)가 점령되자 청도 천진(天津)한구(漢口)가타전중국각처에 잇던 독일인 경영의 덕화학교(德華學校)는 전부 폐쇄되어버렷다 그래서 그 여러곳에잇던 덕화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은 모두 상해동제대학으로 모여들어서 한동안 팽창히 번창하엿다 전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로 남아잇는독일인경영의 교육기관이기때문이다 동제대학은 불란서조계(佛租界)안에 잇섯는데 중국이 전쟁에 참가하기까지에는 아무런지도안코 공부를 계속하엿다 그리다가 마침내 중국이 전쟁에 참가하게되자 조계공부국(工部局)으로부터 동제대학교장에게 세시간이내로 철퇴하라는 통첩이 왓다 그래서 학생들은 모두분개하여중국땅이오 불란서땅이아닌데 철퇴하라는말은 당치안타고 반대운동을 하엿다 그러나 통첩바든지 세시간이되자 불란서주둔군(駐屯軍)은 학교에 직시 출동하여 압뒤를 에워쌋다 그리고는 먼저 열쇠를 차지하고서 교실과 실험공장등 학교전부를 봉쇄하여버리고 학생을 해산시켜버렷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순간까지에도 선생들로부터 교수를 바닷다。

◇

학교안 기숙사에잇던 외지유학생들은 갑자기 갈곳이 업서서 딱한 형편이엇는데 그때 당소의(唐紹儀)씨의 알선으로 각여관을 빌어서 약한달동안 머믈며 공부도 한달동안 쉬엇다 그리다가 양계초(梁啓超)씨가 경영하다가 그만둔 중국공학교의 집을빌어서 공부를 계속하엿다 독일인교원도 모두 그학교안에 다시 사택을 짓고 거주하엿다 그리다가 그뒤 독일이패전하엿다는 소식이 들렷다 서양사람의 우는것은 소처럼 본열이어섯는데 그때에 독일인교원들의 통곡하는 광경을 보앗다 패전된뒤로 중국에잇는 독일사람은 전부 배에 태워서 본차내게되엿다 쫏겨나갈 기한이 수일밧게 남지안햇스며 또한 그통지를 밧고서도 사택에잇던 독일선생들은 태연자약하엿다 뿐만아니라 정원에 심어둔 화초에물을 뿌리며 여전히 정성껏 각구고잇섯다 그들은 아마 비록 자기들이 그집을 떠난다더라도 그화초만은 누구에게든지 귀엽게 각구어지도록 남겨두자는 뜻이든하엿다 나는 그때에 그들의 그정신을 보고 참으로 우리동양사람보다는 특별히 다른 장점을 엿볼수잇는 동시에 감격하엿다。

◇

나는 전란중에서 동제대학을 마치고 전쟁이끗난 이년뒤에독일로가서 백림대학에 입학하엿다 그때에 백림은물론 전독일각도시에서 주택과 식량은 전부국가에서 통제하게되엿다 백림시청에는『보농스암트』(주택관리국)라는것이 잇서서 비록민간의 소유가옥이라도 제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하고 집업는사람이 집을구하게되는때에는 표를발행하여 강제로 빌리도록 하엿다『빵』기타 일용식료품도 모두 평균히 배급하기 위하여 전표로써 사도록되어잇섯다 큰길ㅅ거리에도 전등을띠엄띠엄켜기때문에 거리가 캄캄하엿다 이것은 전기를 절약하기때문이엇는데 차차로 더커서 밝게하엿다 이때에 독일에는 통화가 팽창되어서 외국돈은 비싸고독일돈은 무척 헐해젓기 때문에 외국유학생들이 무척만히 모여들엇다 대학에와서 공부하는학생들가운데 외국학생들은 고흔옷을입고 퍽사치한생활을 하고잇섯지만 독일학생들은 미꾸멍이뚤허진 바지나 그러치안흐면 갈잔 노동복을입고 다녓다 그러고 그들은 점심『빵』한조각에 인조『빠터』조금씩을 발러먹고 끼니를 지내고잇섯다 그러나 그들의 기상은 언제든지 놉흘하고 강한모국을 다시건설하려는 투쟁력이왕성하엿다。

◇

그밧게 학생소비조합이 잇서서모든 학용품은거기서 사게되며 또그식당에는 남녀학생이번갈라가면서 수종을하고 대학안 구두수선파세탁소 양복수선소의 감독사무는 학생들의어머니가와서 일을보아주고잇섯다 이것은 모두 학생들의 경비부담을 절약하게하고자하는 성의엇다 독일돈시세가 날노떨어지기 때문에수입이적은 교수들가운데는외국유학생들에게 개인교수를 하여줄터이니 돈대신에『빵』한덩이씩을달라고 교섭한일도 잇섯다 나도그러한교섭을바든 일이잇섯다 그때야말로 독일학자들의 생활도 말할수업시 참담하던때이엇다 독일에서는 대전뒤에이러한표어가 유행되고잇섯다 즉『독일은 전쟁에는 이겻스나 외교에는젓다』『아프로는 외교를 배워야한다』는 것이엇다。 그래서 백림대학에서는 외교강좌를설치하고 독일학생에게만 외교공부를 시켯다 그리고학교안에 사교구락부를 두고서 외국학생들과교제를 시켯다 구세투쟁과 근기잇는 인내로써 이십여년동안에강한 독일을다시 세웟든것인데 이번에도 전쟁을일으키게된것이다。

(사진은 이극로박사)

全北救濟豫算 七百九十二萬餘圓 八割을勞賃으로!

十六日에道會後急速히着手

【全北支社電話】 백륙십만도민이 대망하던 소화십사년도 전북도한해대책사업예산은총독부의승인을 어더그정보를 십일일정오에 전북도내무부장실에서 내무부장으로부터발표되엇다

예산총액은칠백구십이만이천삼백이원으로 토지개량사업 사방공사 도로수축 임도(林道)개발 부업장려등 사업에 이를충당하여 노동임금으로 일반이재민의 주머니에 들어갈돈은 전액의약팔할인 유백삼십삼만원가량이라 한다 도당국에서는 십륙일도회를소집하고 전기계획예산의 삼분의일을 도비(道費)로써 지출코자 부의(附議)할예정이다 도회가 끗난후이십일경에 부윤 군수와경찰서장회의를 소집하여 각지방의 실제사정을 참작해서 실행방법을 결정하고 즉시사업에 착수할터이다 구제일주의로나가지만은 재생산적효과를 고려하여 수행하리라하며 이예산으로서구제의은전을받지못하는자는 만주나북조선지방과 내지방면노동시장에알선하리라하며 각종사업별예산총액은 다음파갓다

▲土地改良事業費 三四八萬圓 ▲砂防事業費 五五萬圓 ▲土木事業費 三二一萬圓 ▲林道開設工事費 一二八萬圓 ▲副業獎勵費 四〇萬圓

△…北滿開拓挺身隊壯行會 (어제총독부에서)

求婚詐欺

지난오월중순부터 내한강통십륙번지 대동업 목모삼태(木暮森太)(三〇)가 신경청명가(新京淸明街)이백사번지 산본정자(山本正子)(二一)라는 여자의 그럴한 남편을 엇겟노라는 신문광고가 잇스므로 호래비인목모는 곳자기와 혼인하자고 편지를하엿섯다 면회후 정자에게서 곳 서울로오고 시프나 약간의빗이잇스니 일백오십원만보내라고하여 보내주엇든바 면칠후 또다시돈이 모자라니 일백오십원만더 보내라고하여 곳또 보냇지 나흘후에 난다는 전보가 왓스므로 목모는날마다 정거장에나아가서 새악씨가 오기만기다렷스나 평궈먹은 소식이므로 신경경찰서로 조회해본결과 정자는그돈을 가지고동경으로 빵손이를친것이 판명되어 용산경찰서에는 동경으로 정자를붓들어보내달라고 수배를하엿다

天主에게 武運빌며 神父部隊登程

一行五名·昨日京城發故國에

조선안에잇는 불란서사람 열일곱명에게 본국정부로부터 소집령이 나리엇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우선이중에 다섯명이 십일일오후 네시이십오분 북경행(北京行)열차로 경성역을떠낫다 이들은모두 천주교(天主敎)의 신부로 성경을버리고 총을메러가는것이다 일행가운데는 육군소장도한명이나잇다 역두에는불란서인파 천주교의관계자등 백여명이 나와『비브·라·프랑스』(불란서만세)를 노피불러 무운장구를비럿고 떠나는이들은『조국을위하여 한몸을바치것다』고 굳은맹서를하엿다『세제』소장은다음파가치말한다

우리는 이제 조선안에서의마지막예배를보며 정의를 위하여나가는 우리나라에게 복이잇서지이다고 빌엇다 우리일행은 위선 천진(天津)까지갈것인데 거기서 어떠케될는지는 몰으겟다 오로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칠결심이다

그리고 일행의씨명은 다음파갓다 (사진은 떠나가는일행)

모리마르(佛)中隊長
팔렌(佛)步兵
세제(佛)陸軍少將
호로마뚜(佛)步兵
할레(佛)陸軍少將

主人의보리를賣喫

【天安】 머슴을밋거라하고 보리한바리를실어 찌여오라하엿더니 그보리를팔아가지고 도주한머슴이잇다 듯는바에의하면 아산군탕정면매곡리(牙山郡湯井面梅谷里)에 거주하는 윤춘식(尹春植)씨는 오래동안사용하던 자기머슴 성불호(成不好)(二一)를다려 천안읍(天安邑)에가서 보리를찌여오라하고 대두십여두를 소에게실어서 지난초팔일아침에 보내더니 전기 성불호는 그보리를 천안읍 금정 정미업자 임대호(任大好)씨에게 이십일원구십전을밧고 매각한후 실고갓던 농우한필은 무소문이들여온지 그날다섯시쯤 주인집으로갈어다주고 그날오후한시쯤 아주다라나버리고 말엇는데 방아찌러간사람이 그이튼날까지 돌아오지안흠으로 주인은 천안읍에가서 조사하여보앗다 그와가치 되엿스므로 천안경찰에 고발하여 방금 엄탐중이라한다

烏山防空訓練良好

【烏山】 경기도오산에서는 지난사일부터 방공연습을 구일정오까지 육일간을행하엿는데 첫날만은 싸이렌소리를 잘알어듯지못하여 좀불당하엿스나 오일부터 오늘가은성적이퍽양호하엿다한다

動亂의歐洲를뒤로 舞姬崔女史歸國

大戰勃發로英、獨、伊公演斷念

동란의파리에서온 소식에의하면 남부불란서에 목고잇스며가을의파리무대를 데뷰하려던 조선이 낫은세계적무희 최승희(崔承喜)여사는 전란의 구라파를떠나 칠일"불로-뉴"에서 일본우선 녹도환(鹿島丸)을타고 갑자기 귀국의길에올랏다 무희는 재작년십이월이십구일 횡빈을떠나"산후란시스코"를거처"뉴-욕"에가서 일년동안무대에서 양키-팬의절찬을바든다음 작년십이월말 대서양을 건너 파리로가서 금년일월삼십일일 구라파첫무대에 데뷰하여 굉장한 인끼를 엇고 금년말까지구주열두나라의 공연을 마치고명년봄에나 돌아올예정이엇스나 공연계약이 올고 잇든 『런든』『베를린』 그리고 『로-마』의공연을다접고 갑자기귀국의 길에 오르게된것이다

이소식을 가지고 그의오빠최승일(崔承一)씨를 종로일정목동아흥업사(東亞興業社)로차즈니 『동양은 어떤대요? 그러치안허도구주전지가 소란해지기시작할때부터 퍽걱정하엿습니다 저에게는 아직아무런통지도 업서 퍽궁금하게여기던차입니다』하며 무사히돌아온다는소식을 반기엇다 (사진은 최여사)

鷄卵時勢異變

每日每日비싸지는판

요사이 경성시내에는 "계란갑이변"이생겨 경성부에서는 대책에 부심중이다 시내에서 일년동안에 먹히는계란은 약사십만관에달하는데 시내생산은 불과유만관뿐이므로부당국에서는자급자족을목표로 계란의증산계획을 세우고 위선시내 생산계란의 우선 적판도를 확보하고자 이달부터 일수판매인(一手販賣人)을정하고 부내에서 생산하는 계란을 모조리사들여 각소매업자에게 팔기도하엿던바 그후의 소매갑시 날마다 비싸지기시작하여 작금은 제일싼거라야 한개에칠전이라는 비싼시세가되어 일반의 공항이 막심하므로 조사하엿더니 시내에서 소비되는 계란의 대부분을 취급하는 경기도농회에서 사들이는갑시 삼월이십일일에 차관에 (육십개내지칠십개) 이원육십전하던것이오월십칠일에는삼원、팔월이십오일에는 사원이십전으로 경성부의 일수판매인이 사들이는 사원사십전으로 비싸젓기때문에 구월사일에는 원까도 그갑세따르지안흘수업는 사정이판명되엇다 경성부에서는 시내게란갑슬억제하는데는 도농회에서 사들이는갑슬 내리는수밧게업다고하여 그갑슬내리도록종용하기로되엇다

實業庭球리-그 殖銀、遞信各勝

京城實業庭球리-그第二日의戰績은 十一日午後四時五十分부터 鮮銀코-트에서 擧行한바 遞信과 殖銀이 各勝하엿다

【殖銀】勝【專賣】

宮川·李圭甚 3…4 吉田·矢田
張德鳳·洪性鶴 3…4 金秉斗·李鍾淳
白南輔·金鍾君 3…4 崔永生·權福仁

【遞信】勝【京電】

(第一라운드)
朴鍾燁·元大奎 4…3 朴允成·金福鎬
閔炳玩·李鍾浣 2…4 金福金·房金鎬
洪承杰·孫閏尾 4…3 張鎬玉·李正玉

(第二라운드)
朴鍾燁·元大奎 0…4 金福金·房金鎬

(第三라운드)
洪承杰·孫閏尾 4…3 金福金·房金鎬

實業卓球大會 遞信軍全勝

朝鮮卓球協會主催의 第九回全朝鮮實業卓球選手權大會團式準決勝戰은 十一日午後五時부터 總督府卓球場에서盛大히擧行된바 文錫瑱君이優勝하엿다 이로써 團體、複式、單式에 모두 遞信이 制覇하엿다

【準決勝】
高岸鎭(遞信) 3 (11-7、11-8、11-8) 1 張興基(朝米)
文錫瑱(遞信) 3 (11-9、11-4、11-4) 0 李順明(專賣)

【決勝戰】
文錫瑱…棄 高岸鎭

今日運動

▲庭球=實業庭球리-그第三日…京鐵對商銀(鮮銀코-트)午後四時五十分(觀覽無料)
▲拳鬪=基靑主催拳鬪大會第二夜 午後七時 鍾路靑年會運動室(觀覽料一般五十錢、學生三十錢)

曆

▲九月十四日(木曜)陰八月二日 ▲干支 甲寅 ▲日出午前六時十三分 ▲日南中 午後零時二十九分 ▲日入 午後六時四十五分 ▲晝間 十二時三十二分 ▲月出 午前六時五十四分 ▲月入 午後七時一分 ▲滿潮(仁川) 午前五時三十分 午後五時五十分

딱총

○절간에 강도가 침입이라… ○부처님 아마 회개하려?
○신호(神戶)에 호열자가 드러와 단다。
○조선의 방비진은 든든한가。
○경성부、방곡(放穀)대책에 애를 태다고。
○고깐 열쇠를 일허버렷단말요?

今日天氣…晴曇不定

廣告

지프테리아脅威에서 어린이를救하라

昨年보다二割以上이나激增

어린이를가진 가정에서는 잇지말고 지푸테리아 예방주사를 마자둡시다——고 위생당국은웨치고잇다 경기도위생과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금년에들어와서 경성시내에서 일어난 지푸테리아의 발생수는 팔월말현재 사백팔십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이할가까운 격증이다 이병은주로 열살이하의 어린이들에게만 침범하는 무서운전염병인데 통계표에 나타난 수자로보면 남조선보다도 북조선에 한결 더만타 사망률도『마마』에 못하지안케 노픈병이므로 도위생당국에서는 무서운 이병의 협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이번에 대대적으로 예방주사를실시하기로 되엇는데 날짜는 오는 이십일로부터 시월이십칠일에 이르는 한달남짓한 동안에 걸처 부내에 잇는 열살이하의 어린이 약 오만명을 기한하고 시내 각처의 학교등에 주사를 놋기로 결정하엿다 주사는 세번씩나누어서 맛는것인데 호열자나 장질부사처럼 주사를마지면 열이나고 아프고 하는일은 절대로업서 어린이들이 아픔을 모르고 마질수잇슬뿐만 아니라 세번만 또박또박마자만두면 효과는 거의 백퍼-센트여서 백명중 구십팔구명까지는 완전히 면역(免疫)될수잇다고 한다 장소도 되도록 일반가정의편의를 보아주기위하여서 시내 약오십여개소에서 마치게할작정이므로 어린이를둔 가정에서는 다소번거로운점이 잇더래도 시기를노치지말고 이번기회에 기어히주사를마치도록 하라고 경기도위생당국에서는 바라고잇다

新發明장판紙

代用品萬歲! 許均氏의發明

종래로 조선에서 써오든 장판지보다 질기고 갑싼 대용품이 무명청년의 연구로 발명되엇다 발명한이는 부내 신당정(新堂町)일백칠번지 허균(許均)(二〇)씨로 버리는 헌종이에다가 규산조달(珪酸曹達)과 석면(石綿)을혼합하여만든것인데 이것을 종래으로 재벽과바닥에바르고 그우에다가 윤이나는칠을하면 보통장판보다 삼배가량오래가고 모양나는 장판이된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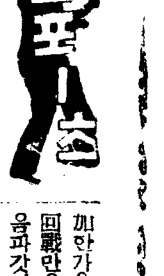
이에대하여 경기도이(李)산업과장은 다음과가치말한다

『허군이 오래전부터연구를 한단말을듣고 촉망하는바가 만핫는데 이제완성되엇다니반갑다 조선에서일년에 소비되는 장판지는 사백만원으로 허군이발명한 대용품을쓴다면 그반액은 경제가 될것이다』 (사진은 허균씨)

뻔뻔한馬車꾼

부내 미근정(渼芹町)一一三번지 마차꾼 정종해(鄭宗海)(二六)는 주인에게 마포강가에가서 모래를실어다가 팔아오라는 명령을들엇스나 거리가멀어 귀찬흐니까 죽첨정(竹添町)이정목 경성부토목과 서부휴소(詰所)에잇는 모래를실어다가 팔아먹고 주인에게는 대까지 바다먹다가 십일저녁때서대문서에붓들리엇다

拳鬪大會 初夜의戰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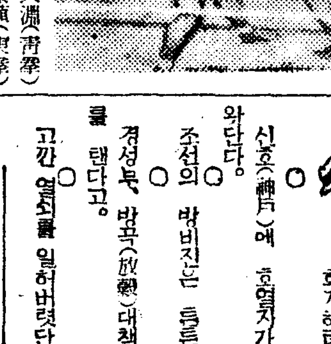


中央基督敎青年會主催의 第十二回全朝鮮拳鬪大會 第一夜는 昨十一日午後七時부터 鍾路青年會運動室에서 四十二名이參加한가운데 열리어 各級의第一回戰만을擧行한바 그戰績은 다음과갓다 (寫眞은 競技光景)

【플라이級】
元學泰(青拳) 判定 宋今成(朝拳)
金聖基(東拳) 判定 金哲淳(青拳)
朴月成(東拳) 判定 張仁洙(青拳)
李濱弼(中東) 判定 維德俊(青拳)
徐丙寬(東拳) 延長 金宗海(青拳)
申龍永(青拳) 判定 崔興燮(靑拳)
梁政權(東拳) TKO 李相根(青拳) ▼第二라운드二分三十四秒
金哲擧(東拳) 判定 朴錫鎬(朝拳)

【밴탐級】
鄭大鏞(青拳)…棄 李吉星(全谷)
李啓烈(青拳)…棄 崔鍾煥(東拳)
朴俊遠(東拳) 判定 趙德俊(中東)

【페더-級】
吳東雨(東拳) TKO 李雲鳳(靑拳) ▼眼部負傷으로第二라운드가끗나자 朴君敗



金聖讚(東拳) 判定 張大遇(青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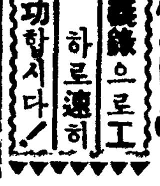
【웰터-級】
尹相俊(中東) 判定 金泰植(東拳)
任昌用(朝拳) TKO 金宗式(靑拳)
▲二라운드에들어가 金光式君敗退

徵兵檢査와口頭試問에 말더듬는분이大喜

노래나 술읽을때는 술술나오지만 實際한말을하려면 더듬게되는분의 矯正法으로써 新自宅矯正法이研究되어 十五歲以上은대번에 나아서 非常한好評을 박고잇다。『新自宅矯正法』의學理的說明書、全國의全快者記錄書、上原博士의推奬文等 一人一冊限無代進呈하니 東京神田스루가臺『正音研究所』로 年齡을明記하고 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附記하여申込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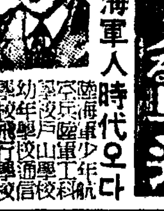
먼저就職

조-호講義錄으로工夫하야 하로速히 立身成功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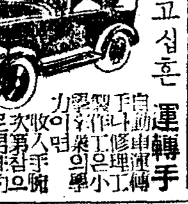
鐵道員으로의捷徑 各鐵道에서每年大募集 日本鐵道敎育會

巡査로의捷徑 巡査만큼愉快한職務는업다 日本警務敎育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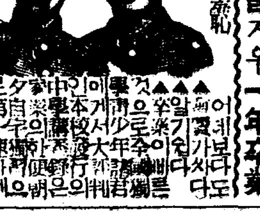
陸海軍人으로의捷徑 今也陸海軍人時代오다 日本軍事敎育會

藥種商으로의捷徑 藥劑師와가튼藥種商 藥種商敎育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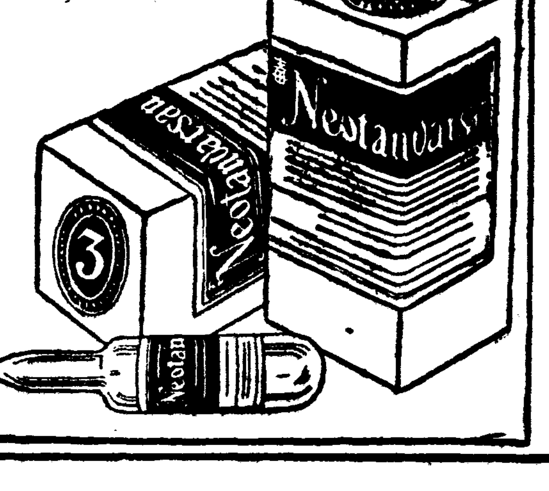
運轉手로의捷徑 運轉手나 되고십흔 自動車敎育會

中學講義 어데보다도卒業이速하다 어데보다도會費가싸다 어데보다도알기쉽다 自宅獨習겨우一年卒業



見本과規則 無代進呈 東京市牛込區台町 大日本國中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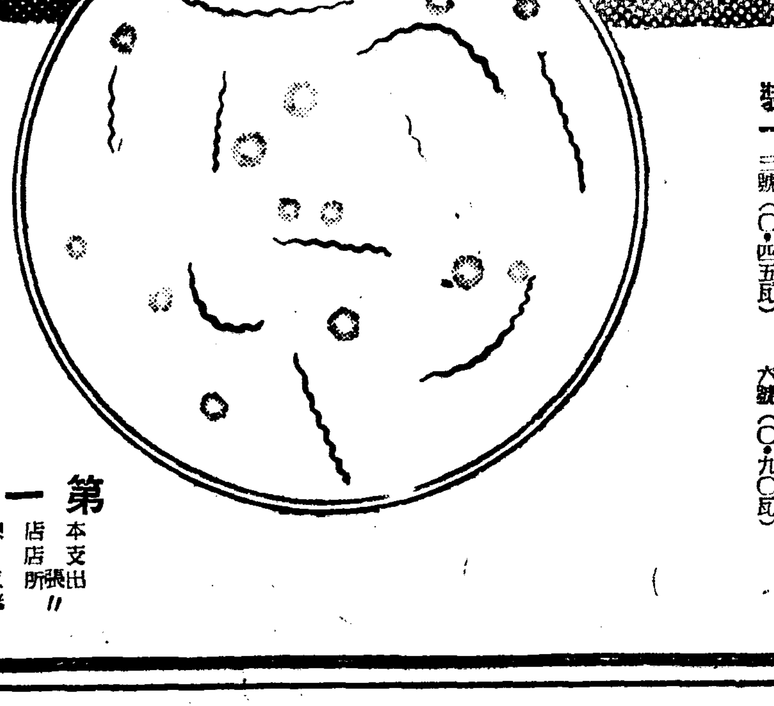
靜脈注射用 ネオ·タンワルサン 驅黴砒素劑



二十五年의 光輝잇는歷史와 熟練된技術、完備된 設備에依하야 吟味精選된ネオタンワルサン은 專門諸大家의 推奬에 依하야 年年그聲價가 益益노파진다

模造品에注意 驅黴成績의完璧과治療의完全과를期하는臨床家諸位는모두本劑를愛用한다

適應症 黴毒의 各期와 黴毒으로 이러나는 各種의 隨伴症狀의 治癒와 豫防에適합。또 脊髓癆、痲痺性痴呆、回歸熱、一般스피로헤-테에因한 疾患 마라리아、鼠咬症、氣熱、瘴熱帶苺痘等에도 特効잇슴。또 天疱瘡、扁平紅色苔癬、鱗屑疹等 砒素劑應用의 모든範圍에 良効잇슴。



包裝 一號(〇·一五瓦) 二號(〇·三〇瓦) 三號(〇·四五瓦) 四號(〇·六〇瓦) 五號(〇·七五瓦) 六號(〇·九〇瓦)

또 靜脈內注射不可能의 患者에 適當한 皮下注射用 ミオ·アーセミン 잇슴 또 砒素劑와 交互使用에 適當한 蒼鉛劑キフロン의 選用을顧함

製造發賣元 第一製藥株式會社 本店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三丁目 支店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出張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十六番地 〃 奉天市大和區平安町三番地 NTO

中部版

正租飢饉을奇貨로 不正仲介業者跋扈
벼산다고千餘圓을橫領逃走
開城精米業界에새로운犯罪

【開城】정조원료의 구득난으로 개성정미업자는 휴업상태에빠져 전전긍긍하고잇다함은 기보한바 어니와 이를기회로 정미업자를 속여 대금을횡령해가지고 도주한 악덕잘거간이 나타나게 되엇다 부내 동본정(東本町)공굴(貢洞)사는 장억실(張億實)(四三)이라는 잘거간은 지난 칠월 오전열시경 원정(元町)일백사십 이번지、협성정미소(協成精米所) 에가서 주인 이상선(李相善)씨 를 보고 정조이백오십가마니를 부내 지정(池町)사백칠십사번 지 김건중(金建中)씨집에서 사 주마고하후 나종에는 김건중씨 의 인장이찍힌 매매계약서까지 가지고와서 조타고한다 그러나 이것이 인장위조의 허위계약서 인것을 모르는 정미 주인 이 씨는 매도자의 요구라함에 그 후 계약금 일천원을 장억실에 게 주엇던바 이자는 이돈을가 지고 즉시어데론지 종적을감추 엇는데 개성서에서는 장억실의 간곳을 엄중조사중이다

京畿中學同窓會 十三日午後開催

시내화동 경기공립중학교에서 는 오는십삼일 오후네시반부터 신축낙성된 그학교강당에서 추 기동창회를열고 역사를 자랑하 는 그학교로서 교운이 나날이 번창함을따라 여러가지 시설과 ... 비용이 드는데 ... 도 결정하리라한다 그런데 동 창회원들은 만히참석하여 모교 의 발전을위하여 조흔의견을만 히 발표해주기를바라며 회비는 삼십전은 당일가지고오기를 바 란다한다

儒教講習會開催
文詩書畵應試도擧行
=十五日、開城明倫會에서=

【開城】개성명륜회(明倫會)에서 는점점 퇴폐해가는 유교의미 풍속을 교정해서 동양도덕의유 교문화를 보급시키기위하여 오 는십오일 오후한시부터 금운묘 에서임시 강습회를 개최하고강 연을행한후 다음과가치 응시과 제(科題)를내여 고선후시상하기 로되엇다는바 응시자급 유지제 씨는다수 참가해주기를 바란다 한다

▲演士及演題
▲演題未定 安寅植
▲國民生活의道德的意義 李□載
▲科試合格者施賞細辭 宋府尹

文詩書畵科題
一、文題 孝子는百行의根源
二、詩題 秋感 押秋
三、書題 □□九欒 □明于天
四、畵題 四君子 山水 人物 花鳥 草虫 靜物 風景等 隨意

等級及施賞
一等 各一人 (合四人)
二等 各二人 (合八人)
三等 各三名 (合十二人)
四等 各四名 (合十六人)
五等 各六名 (合廿四人)

珠算夜學講習會 廿日부터十日間

추계수산야학강습회(珠算夜學講習會)...

換節期衛生團束
防疫施設에協力要望
永登浦署에서八項目을實施

【永登浦】부내영등포경찰서에서 는 환절기(換節期)를당하여 종 후보건위생하보에 만전의노력을 다하고잇는데 팔월의뒤를이어구 월중에 실시할 방역시설(防疫 施設)의 계획을 다음과가치세우 고 이것을관하일반에게 통달하 는동시에 관계각방면과 긴밀한 연락을취하여 유루가업도록 주 의하고잇다 그실적을 나타내 려면 일반대중의자각과 협력을 절망하여 마지안는다한다

一、秋季種痘實施計畫
九月中種牛痘及防疫施設計畫
군부(郡部)에서는 금년도추기 종두실시에편하여 각주재소에 서는 면(面)과 연락을취하여 요종두자(要種痘者)를 선정하 여 시월초순부터 중순까지에 일제히 실시하도록할일

二、傳染病豫防注射及豫防內服藥服用督勵
노동자와일반에게、장질부사예 방주사와 적리예방내복약을복 용하도록 독려할일、

三、細民窟族의捕蠅督勵
판내접객업자(接客業者)에대하 여는 파리와 쥐를 잡어 제 출하도록 명령하고 일반에게 는 이것의장려를 철저히 하 는동시 파리、쥐를사드릴것

四、露店販賣飮食物取締
노점에지붕을대노코 파는음식물 을 ...

五、食肉營業一齊取締實施
판내 식육영업자전부에대하여 위생시설에 위반이업는가、법 규에의하여 일제히취체를강화 할것

에대하여는 위생상유해한것이 업는가 또는 위생시설、음식 점형의유무에편하여 취체할일

六、雨期衛生에關한注意
한발의뒤를이어 이달에는 상당한 강우를 예상하게되므로 비온뒤 주택내외 하수도청결

七、狂犬病豫防注射實施
지난봄에 실시한때에빠진것을 조사하여 일제히 이달중에는 주사를 마치도록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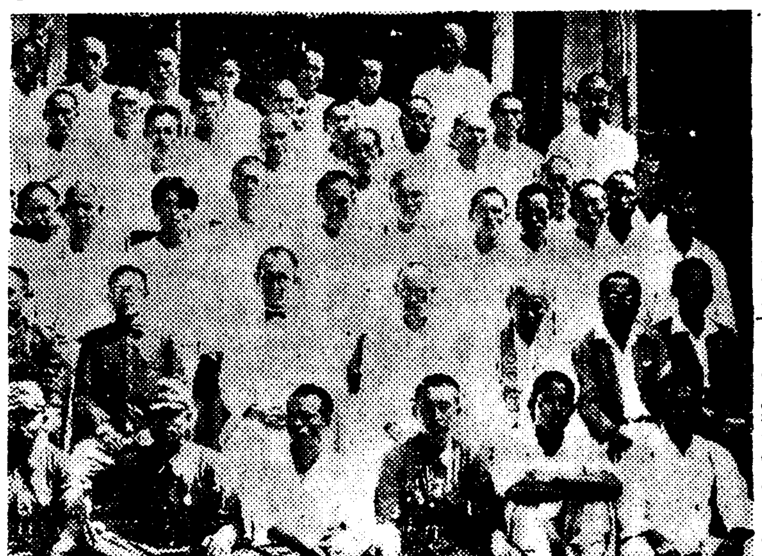
八、其他

昇格된興東學校
去十日부터새로開校
始興郡新東面學齡兒童의喜悅

【永登浦】시흥군 신동면(始興郡新東面)에잇는 사립흥동학교(興東學校)승격운동문제는 기보한 바와가치니다 드디여 지난팔월 이십팔일부로 도학무과로부터인 가되엇다 그리하야 구월팔일에 중원(中園)시흥군시학이회아래재 학생사백삼십명의 편입시험을시 행한후 구월십일부터 새로히개 교를하게되엇다

長湍郡各面長會議

【長湍】장단군에서는 금년미증 유의한발에비치여 농촌진흥에일 층박차를가하는동시에 퇴비증산 을적극적장려하고자 지난십일오 후한시부터 장단군회의실에서각 면장회의를 개최하엿는데 개회 벽두에 서군수의훈시가잇슨후 협 의사항에들어가서 퇴비증산장려 에관한조직과 독려의방법에대하 여 협의를행하여 장려의만전을 기하기로되엇다



更生部落의幹部 五十餘名講習會
長湍郡에서二日續開

【長湍】장단군에서는 농촌갱생 운동에 박차를가하여 일층효과 를 거두고자 진흥운동을 강화하기위하여 지난이일부터 이일간도라 산영수암(靈水庵)에서 군내갱생 부락간부오십여명을 소집하여강 습회를 개최하엿다는데 먼저일 동은 국가합창 궁성요배전몰장 병에게 묵도를올리고 황국신민 서사를제송한후 서군수의 장시 간의 훈화가잇슨후 강의에 들어갓다는데 강사와연제는 다음과갓다

▲第一日 生業報國의方途 □□ 更生計畫의 □□□實行 □□ 指導方法 朴鍾河 □□ 生活改善 尹社會主事 時局講話 平山署長
▲第二日 時局認識 高橋內務課長 操作 李主技 □□ 方法 □□ 家畜과堆肥 朴 □□ (□□은 長湍郡更生部落幹部及 講師一同)

貯蓄債券賣出

【春川】십팔회되는 저축채권 (貯蓄債券)은 오는십오일부터삼 십일까지 강원도내 각지에서우 편국과 식산은행지점 금융조합 등에서 매출하리라고하는바 각 관계자들은 소화하에 노력중 이라한다

古蹟愛護日에 淸掃工作實施

【烏山】오산에서는 지난십일 고 적애호주간일을 당하여 각학교 에서는 교장이하 생도들로 궐 리(闕里)공자묘(孔子廟)에 청소 를 일신하게하엿고 성호면에서 는 오산선사를 일신하게청소하 엿다

地主와舍音을招集 旱害對策을協議
烏山에서救濟會도結成

【烏山】수원군성호면(城湖面)에 서는 지난십일오전열시 면회의 실에서 지주와사음(地主舍音)육 십여명을 집합하여 소작료면감대 책에대한 타합회를강면장(康面 長)사회로열고 소작인과 지주간 에 소작료받는문제에대하여 적 당한 처리를받도록하라는말과금 년가치 심한한해에는 지주가희 생하라는 타합을한후 면장으로 부터 한해구제에대하여 공사사 업(工事事業)으로 오산천수정리 (水淸里)압제방일을것과 보를수 로(洑水路)개수에대한것외에 여 러가지 사업에대한 행사할것을 선언한후 즉석에서 한해구제회 (旱害救濟會)를 발기조직한후각 역원을 선정하엿는데 피선된역 원은아래와갓다

◇旱害救濟委員氏名
會長 韓□□ ▲副會長 林盛郁 ▲委員 ...

水原에서는八十名 青年團大會에出席

【水原】오는십육、칠양일 경성 에서모이는 일(日)만(滿)화(華) 삼국의 신동아건설의 중대한책 임을질머질 씩씩한청년들의 모 히는 흥아청년단대회에 수원군 에서도 팔십여명의 단원대표가 이대회에 출석키로하고 각면에 서 각단대표가 지난십일 상오 십시 수원읍 신풍소학교교정에 모히어 교련과 대회지휘에대한 예비타합회로 대연습을하고 하 오두시경 무사히 산회하엿다

▲江上面九化町 自九月十八日至
▲大南面□川里 〃
▲小南洞有德里 〃

阿片密賣犯 支那人逮捕

【仁川】산동성등주부문등현마두 촌(山東省登州府文登縣馬頭村)에 원적을두고 인천부화방정(花房 町)이정목 구번지에사는 왕영해 (王永海)(三七)는 아편을밀매한다 는것을 인천서원이탐지하고 지 난팔일 오후영시경에 점기장소 에서 왕을체포하여 취조한결과 이자는 『모루히네』중독자로서작 년사월경부터 대련이나 청도방 면에서 입항하는배의 선원들에 게 부탁을하고 아편을사드려서 는 부내에잇는 지나인에게 판 사실도 들어낫스며 수일전에도 천진서들어온 모기선의 선부에 게 아편팔십여원어치를 사드려 서 팔아먹은사실이 취조에나타 낫는데 여죄가만흔모양으로 계 속취조중이다

青年團大會에 三十六名出席

【長湍】오는십오일부터 경성에서 개최하는 대일본청년단제십 오회대회에 장단군에서 대표로 서군수이하 삼십오명이 출석하 기로되엇다는데 출석자의씨명은 다음과갓다

徐郡守 高橋內務課長 藤原視學 ...

端川에도暴雨

【端川】함남단천에서는 사오일 계속하던 임우(霖雨)는 지난칠 일밤부터 소나비로 변하여단천 면일대는 하천수가 범람하 여도로전답 가옥침수 교통두절의 수국화하여 드디어 밤중에일대 소동을일으켯다 어떻든 옹력으로 작년대수해 가낫던날에 해당하다고하여일시 는우려하엿다 비는팔일오후부터 개이기는 개엿스나 산지대의소 식을 알지못하여 일반은 궁금 히각생하고잇다

長湍秋繭共販開始

【長湍】장단군농회에서는 예년 과가치 추견공동판매간선을 오 는십육일부터 장단역전 군내구 화대남、소남의개공동판매장에서 개시하기로 되엇다는데 공판기 일은 다음과갓다

▲長湍驛前 自九月十六日至九月二十五日
▲郡內面邑內里 自九月十六日至九月二十六日

"왕겨"도飢饉必至
仁川細窮民에燃料難

【仁川】찬바람이불기시작하자인 천부내에서는 겨울지낼연료(燃 料)인『왕겨』를사드리려고 부 내각정미소에는 요즘매일 이삼 십명식몰려온다 그러나 벼가인 천항에드러오지안케업서 백미를 만 들지못하는 정미소에 왕겨만사 러모이는 사람들이 늘어 간다는 바 이에 부내송현(松峴)정미소 의말을드르면 예년가트면 연료 로 왕겨가만히산출될터이나 금 년과가튼 정조출회의 두절상태 에잇서서 벼를사지못하여 업자 들이 개점휴업상태에 빠지어서 잇는이때에 왕겨는 구경도못할 지경이며 따라서 신곡출회기가 머지안허도 례년과가치 풍부치 를못할것이므로 금년겨울에는인 천항의 연료문제가 한층더혹심 할터이라한다 이로인하여 부내 에산재한 삼천여세궁민들은 비롯 하여 봉급생활자중류계급이하로서는 벌써부터 연료방책에 일대 공포를느끼고잇다

벌써稻刈取
江原道北部에서

【春川】한발로 말미아마 금년 의 농작물에 대하여 극히말정 만흠은 여름도 어느듯지나가고 수확의가을은 닥처왓다 특히 우리강원도도 역시타도 와가치 다소한발로인하여 타격 을바덧지만 그러나 농작물에대 한피해는극히적엇섯다 벌써강원 도북부 육우일삼이호(陸羽一 三二號)조생(早生)벼는 철원(鐵 原)지방을위시로 지난칠팔일부터 베비기를 시작하엿고평강 이천 김화(金化)평강(平康)이천(伊川)등고원지대에 서도 일제히베비기를시작하엿다

陽東水組貯水池
希望者에게競爭入札
約十萬坪으로有望한工業地

【永登浦】시흥군동면구로리 (始興郡東面九老里)양동수리조합(陽東水利組合) 저수지(貯水池)는도 내유수한 저수지로 또는낙시질 군들의 유일한낙시질터로 유명 하던곳인데 금번동저수지 구만 구천일백삼십평을 일반희망자에 게 경쟁입찰을 하기로 되엇다 동저수지터는 경인가도(京仁街 道)에연하여 경인일체에의한 장 래공업지대로서 비약적 발전이 기대되는곳인만큼 입찰의결과는 일반의주목을 끌고잇다 이상입 찰희망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입찰득서(入札心得書)를 김포 군양동면목동리 (金浦郡陽東面木洞里) ...

文化遺產에奉仕
古蹟愛護데ー開城에서
卅餘團體가總出動淸掃工作

【開城】지난십일고도개성의 그 적애호데ー」는 부내각정면과각 학교학생들이 가장 뜻깁게 마 지하게 되엇다 즉 이날새벽일곱시 삼십여단 체의 수천명근로봉사대는 일제 히 비를들러메고 『선죽교』『만 월대』『남대문』『경덕궁』등십 개소의 명승고적으로 청소작업 을하려 진군하게 되엇다 그래 이들은 각기대오를 편성해가지 고 자기가맡튼 고적부근을 정 갈스럽게 소제하기에 귀한땀을 흘렷다 그리고 쉬는동안 선조 가 남겨노코간 유서기픈고적을 감명깁게 바라보며 과거의찬연 튼 문화를 눈감고 연상함에서 『문화유산』의 뜻기픈교훈을배 호게되엇다

纖湖庭球大會 盛況으로終幕

【水原】수원운동구락부(水原運 動俱樂部)주최와 본사수원지국후 원의 제유회 기호정구대회는 예 정과가치 십일 상오십시 초추 의 맑은하늘아래 동산농장(東山 農場)구장에서 열닌바 국기게양 궁성요배、황국신민서사、대회장 최경환(崔景煥)씨의 개회사와 심 판부의 주의사항 작년도우승조 박기원(朴奇元)군의 우승기반환 이잇슨후 직시 대전이벌니여진 바 선수는 경성(京城)이천(利 川)수원(水原)각지의 맹장수십 명으로서 최후의월계관은 연전 (延專)의 리인준(李仁俊)김윤섭 (金允燮)조가 승리한바 결승전 의전적은 다음과갓다

京東 朴奇元 朴尙九 延專 李仁俊 金允燮 스코아 六對七

家庭工業方面으로 職業轉換을斡旋
仁川米穀小賣商에게

【仁川】인천항에는 금년봄이래 백미의원료 정조(正租)출회가희 박하여 이십여정미업자를 비롯 하여 백여명의 백미소매업자들 은 신곡출회기만고대하엿다 그 러데 요새한층더 비운에 차여 부내에서 쌀이업서 소매업자가 싸전문을 다든곳도 벌서칠팔개 소나된다 그들의 복구책으로인 천미곡상조합에서도 만전지책을 생각햇스나 우흠 하등의 묘안 을 얻지못하고잇슨 요즘 인천 상공회의 손에서도 그대로 방 관만하고잇슬수 업다하여 이미 휴업자에게는 직업전환을 시켜 서생업을 계속하도록하자면 우 선 삼사천원씩의 자본이필요하 다 동회의소상업부장 박남칠(朴 南七)씨를 내지각지의 경공업과 가정공업에 대한것을 세밀히조 사하여 백여명중의 미곡업자들 중에 폐점한 조합원과 아프로 도 전환하려는 자들에게 생계를보 전하도록하려고 동경(東京)대판 (大阪)신호(神戶)명고옥(名古屋) 등지에 경제시찰을 결하여 오 는십삼일에 파견하리라는바 박 씨의 시찰경과가 관계업자에게 대하여 큰 기대를 갓게되며따 라서 일반의 주목을이끌고잇다

∞牧∞童∞ (開城郊外에서)

京南 第二回全京城少年蹴球大會

▲時日 九月三十日午後一時부터 十月一日까지
▲場所 京城府元町旭川運動場에서
▲身長 五尺二寸以下
▲申請期限 九月二十七日午後五時까지
▲參加金 每組三圓式
▲抽籤 九月二十七日午後七時同會館
◇主催 龍山體育會
◇後援 朝鮮日報京南支局

水むしに惱む方...

夏節에 惡化한무좀을 治療하는것은秋季입니다!
—角化한患部의皮膚를부드럽게하며殺菌力이菌에作用하는ボンスリー로治療하는것이가장有效합니다.

植物性の新劑
滲透、殺菌、乾燥…三拍子揃った治療法の三要件を具備한皮膚科學的으로가장進步한新治療劑입니다 植物性이므로刺戟이적은것이特長!

ボンスリー
본스리
大阪·東京 田邊商店　四十錢·八十錢
23

새로운——
頭痛·感冒藥
ノバポン錠
노바폰

痛症과熱에……
머리가아푸고、어깨가결리고、감기氣味로熱이잇는……이런경우에는ノバポン錠이가장有效합니다
——即、在來의製劑에比하여、熱을내리고病症을鎭定하는作用이一層迅速하고、또確實합니다。그리고胃에害롭지안코、連用해도中毒과發疹等의不安이업습니다。
一家에一瓶! 老人의神經痛과腰痛、애기들의齒痛等의경우에도、곳所用되도록 이것한一瓶의常備를勸奬합니다……。

十二錠…四十錢 三十六錠…一圓 一三〇錠…三圓

大阪市東區道修町 田邊五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田邊元三郎商店

長編小說

사랑의 水族館 【36】

金南天 作 鄭玄雄 畵

銀珠夫人 (三)

(자동차가 차고에 잇는데 사장이 안계시다니 어떠케하는 말일까?)

하고 의아스러운 낯으로 여자하인의 얼굴을 처다 보앗스나 광호는,

『부인께서도 안 계서나?』

하고 물을 박게 딴 방도가 업섯다.

『마님은 계서요.』

『그럼 잠깐만…』

하인은 안으로 들어 갓다. 얼마아니하여 어신국씨의 부인, 은주(銀珠)가 현관에 나타낫다.

부인의 얼굴을 처음보는 광호는 그가 젊고 어여뿐데 놀래엿다. 『베르벳드·조셋드』의 남빛치마에 흰 적삼을 입고 느리게 『웨이브』를 처서 빗슨 까만 머리는 낭자를 틀어 힌 뜨녀를 꼬잣다. 망사가튼 옅은 어둠이 현관에 어리운 가운데에 동그스럼한 힌 얼굴이 교태를 띈우슴을 그린듯 만든하면서 꽃속처럼 나타낫다.

광호는 명함을꺼내서 올리며 공손히 인사를 하엿다.

『김광호라고 여쭙니다 사장영감께 가끔 뵈왓습니다만…… 출장을 나가다 집에 가환이 잇서 돌아왓던길에 인사말씀이라도 여쭈려고 들렷던 길이올시다.』

『네에 그러세요? 사장영감은 오늘 마침 시골을 가서서…… 가환이시라면 무슨?』

은주부인은 눈가까어 명함을 차자서 광호의 직함을 본뒤에 상냥스럽고 보드러운 목소리로 그러케 물엇다.

『제형이 세상을 떠낫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그다지 감동하지도 안흐면서,

『아이, 그거 참 안되섯구먼요. 그럼 언제 다시 시골로 배려 가시는가요?』

『네, 내일 떠나겟습니다.』

저녁바람이 나무 숲을 몰리며 현관을 지내간다. 여자의 향수 냄새가 광호의 얼굴에 서린다.

『그럼 사장영감은 뵈옵지 못하겟구먼요. 내일 밤이나 모레 아침에나 오실테데……』

얼굴에 유감의 뜻을 그리며 부인은 광호의 나슴 건너다본다. 광호도 벌븐인 손을 맛부비며 힐끗 부인의 얼굴을 처다 보앗다. 서른다섯을 넘엇슬것 갓지는 안타. 살결은 자세히 알 수 업섯스나 근육은 평평하여 구김살 하나 가지 업는 젊기에찬 젊 얼굴이다.

『유감이시지만 돌아 오시면 말솜이라도 엿주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그때에 안으로 통한 문이 열리고 아까와는 다른 여인이 나타나서,

『송선생께선 출입하셧습니다.』

하고 말한다.

『어디루?』

부인은 광호편을 향하며 나즉이 뭇는다.

『어딘지 모르시지만 아마 원동댁으로 가셧슬것 갓다구 그러서요.』

부인은 그말엔 대답치 아니하고 돌어가라는 손짓만 하엿다.

그때에 광호는 다리를 모두고 부인아페 마주 서면서,

『그럼 저는 실례하겟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엿다. 젊은청년의 공손한 경례를 칙칙히 밧고 나서,

『좀 들어 안즈실걸 동회관제를 해서…그럼 영감 오시건 말씀 올리지오.』

하고 약간 우서 보인다.

현관을 물러나서 자갈이 깔린 정원을 걸어 가고 잇는 청년의 뒷모양을 몰끄럼이 바라보다가 은주부인은 만족한 웃음을 입가상에 띠우고 안으로 들어갓다.

그러나 광호는 어신국씨댁을 나서자 어내 송현도를 만낫다.

『아! 김선생.』

『아! 송선생이십니까!』

이러케 두사람은 인사를 나누엇는데 그때에 광호는 지금 은주부인과 하인이 이야기 하던 송선생이란 송현도임에 틀림업다 직각하엿다.

『사장댁에 가시는 길입니까?』

하고 광호가 먼저 물엇다.

『네, 김선생께선……?』

하고 다부지게 생긴 몸통아리가 『한티』을 써서 일층 더 상하로 압축된 느낌을 주는 송현도는 안경을 번뜻하며 광호를 처다본다.

『아직 차차 병움길 못해서, 내일 떠날려고 인사나 여쭈려들렷더니 안계시구먼요.』

광호는 팔 하나로 허리께를 지프며 이야기한다.

『사장은 동경서 오는 손님과 해운대온천서 만나려고 낫차로 부산을 가섯지요.』

이러케 설명하다가 그는,

『참, 백씨병환은 그뒤 차도가 계섯나요?』

하고 뭇는다.

『구하지 못햇습니다.』

이러케 나즉이 대답하는 말에

『허허허, 그거안되섯구먼요.』

그리군 다시 입을 다시듯 하고는,

『참 그거 안되섯는데요.』

하고 연거퍼 말하엿다.

劇壇의 不快事

요즘의 극단(劇壇)을 내다볼때 가장 우리로하여금 불쾌하게 하는것이 꼭 하나잇다。 그것은 즉 인기배우를 중심으로하고 오백원혹은 천원이란 딱지를 부치어가지고 암암리에 경매를하고 돌아다니는 소위 배우『히끼누끼(引拔)』가 그것이다。 더구나 먼 지방에서까지 수천원의 몸갑을가지고 경성으로 배우를 물색하러오는데는 아무리 영리만을 아는장사치라하드라도 파연 그들의 공작태도를 살필때 눈쌀이 저절로 찌프려짐을 어찌할수업다。

▽……△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상연제일주의로 미리부터 자처하고 나선 분지인만큼 우리는 불쾌하나마 그대로어마좀 수긍할수도 잇다。 그러나 어려한 장사치에게 얼굴 ×원어란 차용증서(借用證書)를 쓰고 잔등에다가 취급주의(取扱注意)란 빨간 꼬리표를 달고서 그야말로 이리저리 지방으로 분산되어 나아가는배우 그들에게 시선을돌릴때 파연 어천박한 사실에 우리는 차마 머리를 들고 그들을 정시할수 업슬만치 마음의 괴로움을느낀다。 어것은 사실이다。

▽……△

『사람이란 의리가 잇서야된다。』는 말은 우리는 윌찌기 어려서부터 들어왓지만 어제 우리는 이 교훈으로하여금 『배우는 우선 의리가 잇서야한다。』라고 수정을 개단에 어른것갓다。 자기가 다행히『스타ー』로 주대면 그것을 이용하여서도한 자기하나가 업스면 그극단의 경영이 곤난하리라는 알미운용모와 라산아래에서 살짝 롤을 빼치어『차구려! 경매장』으로 달려가 오백원이니 천원이니의 몸갑을 부르며 창부적(娼婦的)기질을 나타내다는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드라도 그들로하여금 절대로 호감을 가칠수업다。 배우의 인끼란 다만 현식적인것만이 아니다。 내적생활의 충실로부터 오는 견실한인끼가 우선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유리하다는것을 말하여, 끄트로 그들 경매장에 어며나선 사람, 혹은 나서려는 사람으로하여금 강히 한마디 경고하여둔다。

(靑林)

趣味와 娛樂

米國의 映畵統計
觀客은 世界의 半數以上

【桑林發同盟】 북미영화제작배급협회(北米映畵製作配給協會)는 최근 일천구백삼십팔년도의 영화통계를 발표하엿다 이것에의하면 영화관람자는 미국만으로서 일주일에 평균 팔천오백만인이고, 세계에 잇서서는 일주일에 평균 일억오천만인이란 다수에 달한다. 이것을 보면 전세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손님의반수이상이 미국에 잇는셈으로 미국에 잇서서의 영화의보급상태를 여실히 말하고 잇는것이다. 통계상의 중요한 수짜를 추리면 다음과갓다.

(미국만으로)

▲常設館入場料 十億弗
▲이의稅金 百萬弗
▲映畵事業에從事하는人員 二十八萬二千人
▲映畵俳優所得稅額 二億五千弗
▲映畵常設館數 一萬六千二百五十一

作·曲·家 『슈트라우쓰』 佛國에 歸化

【維納】

▼…『윈』출생의 세계적작곡가(作曲家)『오스카ー·슈트라우쓰』씨도 명 지휘자 『브르ー노·와르터ー』씨와가치 최근에 불란서로 귀화하기로결심하고 이것을 발표하엿다한다.

▼…지금으로부터 이년전에 『슈트라우쓰』씨는 불란서의 현문부대신『장·제이』씨로 부터 훈장을바든 관계도 엿스

▼…불란서에서는 그의 인끼가 대단히 조하서 그의작곡중『세가지//왈츠//』는 영화로 또는 무대로대 갈채를바닷스며 이러한관계로부터 그는 요즘에 이르러『사라제보ー』원작의『프랑소와·페르지난』영화화의 작곡을 담당하게된것이다. 그는 또 최근중으로『론돈』으로건너가서『콜다』제작의 영화『바 닷드의 도전』에도 작곡을 맛게되어 잇다한다.

계되엿던것이다。

하ー모니카 合同大演奏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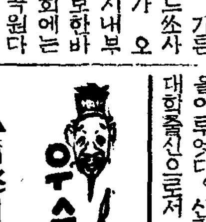
來三十日 府民館

조선 하ー모니카계에 잇서서 라디오와 무대출연으로 만흔활동을하여 이미 십여년의 역사를 가진『알파·하ー모니카밴드』와 역시 수년전에 조직되어 가튼길을 걷고잇는『경성리ー드쏘사이어티』와의합동대연주회가 오는십삼일 일곱시반부터 시내부민관에서 열린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특히 이번연주회에는『//쏘보미//회』를 용지도자곡원다랑(谷原多郞)씨와『대야(大野)게이꼬』양의『탑프』와 『보레로』출이잇스며 안창렬(安昌烈)군파『송기(松崎)요시꼬』『도기(島崎)유끼꼬』양등의독창한창파『백합(百合)어린이회』아동의 동요가잇서 일반의기대는 벌써부터크다한다 특히 입장료는『하ー모니카』를 널리보급하는의미로서 장내정리비 십전만밧기로되엇다한다

海外短信

▲『크리쓰마쓰·카롤』『마네킹』『세동무』등에 출연한『베니스』출생의 『메트론』의 //스타ー//『룬ー즈·스트러드더ー』는 역시가튼『메트론』의//푸로듀서ー//로서『지옥에의 도전(挑戰)』등을 발표한『죠셉·만키윗츠』군과 최근에 화촉의 성전을이루엇다。신랑은『컬럼비아』대학출신으로서 장내가 촉망되는 소장파 재작가라한다。

▲『프랑크·보사ー긴』감독의『메트로』회사에서 신작은『로버ー트·테일러ー』출연의『프로리안』으로 결정하엿다。이것은 처음에『쌈·옷드』감독이 담당하



우슴쌈지

▲有終의美

동네에서 제일 인색한속칭『노랭이』가 중병이 들어 할수업시 의사를 불러왓다 그래서의사가

『어디가 제일 아프십니까』한즉 노랭이 가로되

『그것을 가르켜줄테니 좀싸게 해주』

歐洲大戰을 싸고도는 스파이戰線

일천구백십오년 시월십이일 드디어 사형집행의 거일은 돌아온것이다. 아침부터 구즌비가 내려

어 형장(刑場)에는 회색빗 언개가 자옥하엿다.

시커먼 호송차(護送車)에 실리운『카벨』양은 일대(一隊)의 병사에게 호위가 되어서 형장으로 달려가는것이엇다.

넓은 마당에는 오직 나의 기둥이 서잇고 그여페는 독일인 목사가 자못경건한 표정으로 두 손길을 맛잡고 잇섯다.

『카벨』은 목사에게 잠깐 머리를수기어 고요히 작별의 인사를하고 기둥아프로 가서 바대로 몸을도리켜 어편으로 돌아서자 여페 마침 준비하고잇던 병사하나가 굵은『롭프』로『카벨』의잔약한 육체를 어리저리 함부로 묵거매기 시작하엿다.

『카벨』은 자꾸 술퍼지려는자기의 마음을 두주먹을 단단히쥐고 또한 얼굴을야물고 눈을 구지감고서 억제하려고 애썻다. 『카벨』은 어디까지나 태연하엿다 도리어 여페서

『주 예수크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영원히 어 어린양에게 가치 하소서ー』

하고 성별(聖別)을 고하는 목사의 목소리가 떨리는것이엇다. 그러나『카벨』양의 얼굴비촌 그의 마음자처 고요하고 호수가처 청청하엿다

Y記者 ⑤

射擊! 命令一下에 이슬로 사라진 戰場의 百合花
『에디스·카벨』孃의純情一代記

×……×

열두사람으로 편성된 사격수(射擊手)들은 이윽고 총을들어 탄환을 재이고, 『카벨』양의 가는 복판을 노리고 견냥을 마추기 시작하엿다.

일초, 이초, 삼초…….

그것은 파연 엄숙한 정적(靜寂) 그것이엇다.

『눈을 싸매리까?』

하고 흰 수건을 가지고 자거 아프로 닥어서며 눈을 가리려하던 병사를, 고개를 흔들어 거절한『카벨』이엇스나, 그러나 마지막 영원으로의 이 엄숙한 순간을 당하자, 어쩌는수업시 두눈을 감고 말앗다. 강권은 강권이 아니라 웰일인지 저절로 감아진것이다. 이윽고

『쏘아라!』

하는 상관의 호령소리가 나자 여지것 숨을 죽이고 편영을 노리고잇던 열두개의 총부리는 일제히 불꼬츨 쏘닷다.

탕! 소리와 시간을 가치하여 여지것 기둥에 묵기어 눈을 감고잇던 슬픈여인의 육체는 가슴 한복판에 검붉은 피를 흘리며 멀렁 목을 떨어트렷다. 그것은 흉비엇는 백의(白衣)의 천사//스파이//『에디스·카벨』양의 최후엿다.

이때 여지것 안개가 자욱햇던 어 형장에는 별안간 저쪽하늘의 시커먼구름을 헤치고 태양이 새여나와 눈부신금빗 광선을 비치엇다고 기록에는 적혀잇다.

그러나 이 날의 총소리는 여지것 한 무명어 간호부이던『에디스·카벨』의 이름을 실고서 세계의 구석구석에 흐터진것이엇다

『카벨』양의 죽엄은 파연 연합군(聯合軍)의 사기를 고무시키는데 가장 무엇보다도 힘잇섯던것이다.

그것은 모든 병사의 마음의 부르지즘이 되엇고 호소가 엇고, 또한 모든병사의 가슴에 아로새긴 피의 문자가 되엇던것이다.

어떠한선전도『포스터ー』도『판프렛트』도『카벨』양의 죽엄의보도보다는 연합군을 분기시키지는못하엿다

『//에디스//를 위하여!』

이 한말로써 병사모집에 끄란중이던 영국에는 하루에도 일만명이나 넘는 지원병의 떼가 파도가치 몰리어 들엇다한다.

어리하여 당시의 교만무쌍하던 독일의『카이젤』도

『앗차 너무 일이 빨랏구나 이럴줄알앗드면 그여자를 사형하지말할것을……』

하고 후회하여 주목을쉬고 한동안 어찌할바를 몰랏단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에피쏘ー드』다

(此篇了)

新秋高手對碁戰
布石陣法을構築 風雲造化를待機

觀戰記 權乘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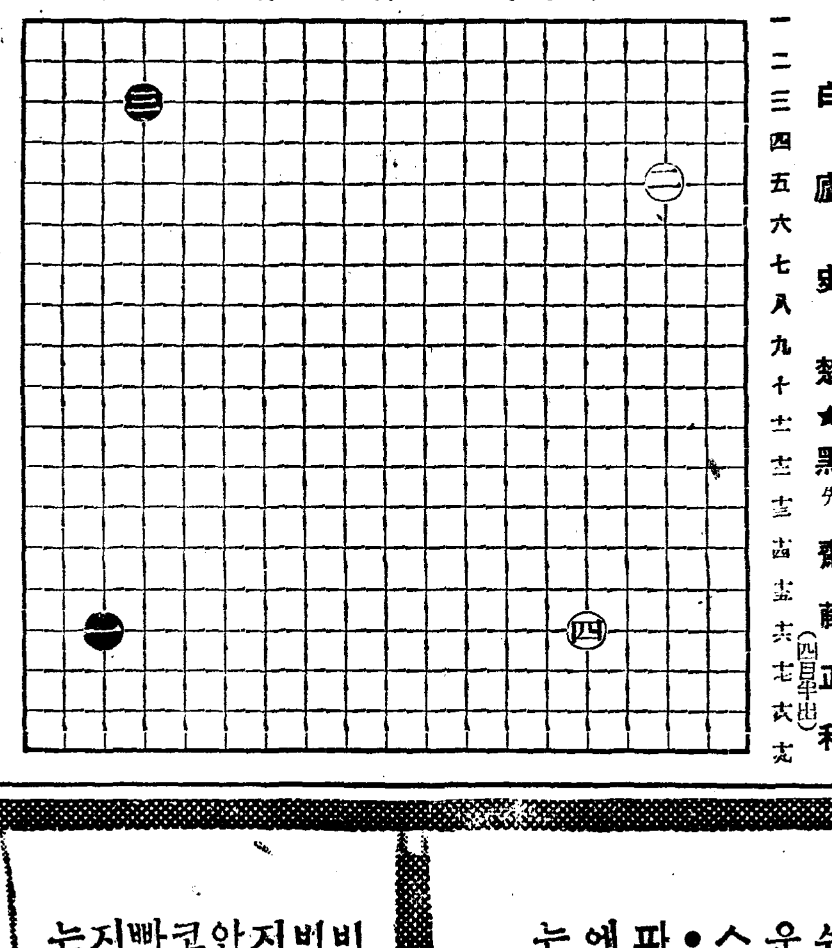
本社賓外로 特別히 盧國手와 齋藤棋士가 朝鮮棋院支援下에 激熱한大碁戰을行하게되엿다. 때마참新秋라 면ー宮樹에 蟬聲이 初歇하고 凉風이 산들산들 病暑之感을 다 어저버렷다 참 이도 한 興味이자 아서라 牛溲馬渤어나마 批文이나 어서 써보자…盧氏는 碁性이 變化莫測이고 齋藤氏는 若年碁家로서 能有二段之格이다 兩雄의對戰은 더욱 한異彩가되니 觀光하는이도 一層緊張味가 잇다……

初陣布石에 들어가 黑一이 午의一六으로『小目』을 排着하니 白은 그反對方으로 二를 丙의五『目外』에 駐屯한다 이는모두 定石의原理이나 各自趣味를따라 方向을 달리하는 一手順인듯 黑三에 二重으로 巳의三에 膠附하니 이는 木谷氏의 信用手인듯 참 堅實味가잇고 白은 또四를戌의 一六에『高目』으로 先欄하니 이도依例의 手法이나白은 언제든지 在來의 花點式에 慣熟하여 종疑點을 未破한듯하다 그러나 實力과變幻에 들어서는 조금도 高段者에 讓步를하지안흘까한다 今日은아마 陣法構築에 不過하니 다음風雲造化를 기다려보자

【1】 白 盧史楚 ★ 黑先 齋藤正和 (四目半出)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丙 乙 甲



〇一 午의十六
●二 丙의五
〇三 巳의三
●四 戌의十六

라디오 프로

九月十二日(火)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 오늘의아두실것
▲午後〇時五分 序曲集 (레코ー드)
▲同〇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染色에이야기』 李興[illegible]
▲同四時 뉴ー스
▲同六時 童謠와이야기『가을마지』—幼年文藝씨ー글作 이야기 張孝[illegible] 唱歌集 京城放送管絃團 指揮 洪蘭坡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가을의하이킹』 金尙鎔
▲同六時三〇分 講演(平壤)『換節期와呼吸器病』 [illegible]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世界에對한日本의新地位』(譯)松岡洋右
▲同八時 京畿雜歌 一、遊山歌 二、제비歌 三、小春香歌 四、달거리 [illegible]
▲同八時三〇分 野談『[illegible]』 張志浩
▲同九時 音律『靈山會相』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同一〇時 라디오메모 明日[illegible]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三六) 金鳳姬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城)琵琶
▲同六時(大)連續劇
▲同六時二五分(廣)講演
▲同八時(東)常磐津
▲同八時三〇分(東)時事講演
▲同九時(東)物語

스·파의洗濯法을
모르고서
興亞時代의婦人의資格
이잇다고할수잇슴니까!

비벼빨면傷하기쉬운스·파에는
비비지안코빠지는
モノゲ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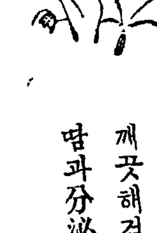
モノゲン
모 노 겐
純正新洗劑

內地定價 一、二〇 、五五
吳服、服裝雜貨 專賣品 七五
M—8—18

日本女性の美と禮節のた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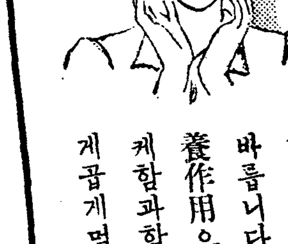
땀에 밀리잔는 健康化粧

1 クラブ乳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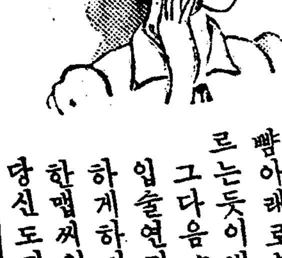
처음에クラブ乳液을脫脂綿에무처서얼골과독을다가냅니다。脂肪과땀과더러운때가시처저서깨끗해진과함게살결을緊縮시켜땀과分泌物을防止합니다。

2 クラブ美身クリーム



다음에クラブ美身크림을얼골에바름니다。호르몬과삐타민의榮養作用으로본살을아름답게健康케함과함께、白粉을얼녹이안지게끕게먹게합니다

3 クラブはき白粉



그래서クラブ가루白粉을과후로빵아래로부터웃쪽으로가볍게누르는듯이바름니다。그다음クラブ빵연지、눈섭먹、입술연지로얼골의輪廓을두렷하게하면、땀에안밀리는高尙한맵씨의化粧이速히됩니다
당신도기어코!

新富座 電本五六七七

九月十二日ヨリ十四日マデ 每日晝夜二回 一時七時卅分始映 大衆料金階上卄錢階下十錢 均一
◇佛パリフイルム超特作『望鄕(ペペルモコ)』 監督 ジュリアンデュヴィヴィエ 主演 ジャンギャバン ミレーユバラン
◇東寶映畵社近作『エノケンの大陸突進』 監督 渡邊邦男 主演 榎本健一 エノケン一座總出演
◇松竹京都作品『尊王祇園會』 監督 冬島泰三 主演 坂東好太郎 二役
次週=特種=エノケン大陸突進 後篇 永遠の感激を期待

松竹映畫
9月11日より17日まで上映時間表
處女讀本 11·25 3·00 6·50
良人の價値 12·35 4·10 8·02
デッドエンド 10·00 1·34 5·04 8·55
次週上映·千潮·『夜は巴里で』
明治座

九月十八日부터
演劇號
新作劇本發表週間!
多恨 朴順女 女史의 性格舍은 演技를 乞期待!

YKH
스윙그·알뻠쏘
東洋의쌀리ー템플 當年六歲少女歌姬
金吉子孃熱演
相對役 金順德 孃
清津 共樂館에서

9月9日より13日まで上映時間表
ジャヅガル 11·41 3·22 7·10
ニュース 12·32 4·13 8·03
桑港 12·55 4·36 8·26
國旗の下に我れ死なん 11·00 2·40 6·15 10·05
次週上映 新女性問答·[illegible]
大陸劇場

九月十二日ヨリ十四日マデ 每日晝夜二回 一時七時卅分始映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松竹京都特作『菩薩の眉』 監督 木村根辰夫 主演 川浪良太郎 川路義人
新興キネマ社東京特作『喧嘩の春』 監督 沼波切雄 主演 宇佐美淳 上山草人 新田實
RKO社映畵社特作『彼女の戰術』 監督 ウイリアム サイタ 主演 ジンジャーロヂャース ジョーエル マッカリ
次週=望鄕 エノケン大陸突進 尊王祇園會=御期待=
桃花劇場 (電話 一三三三)